

“이 주임!

칼퇴가 꼭 ‘워라밸’은

아니야!”



*“팀장님, 오늘 정시에 퇴근하면 안 될까요? 제겐 ‘워라밸’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”*

워라밸... 참, 좋은 말이다.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춰 살 수 있다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싶다. 하지만 현실에선 그게 잘 안 되니까 워라밸, 워라밸 하는 거겠지만.

워라밸의 의미는 5:5 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건 아니라고 본다. 일이나 개인이나 더욱 힘써야 할 이벤트가 있지 않은가!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든지, 중요한 계획 수립을 할 때는 회사 일에, 결혼이나 출산/양육 시에는 개인 생활에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. 길게 본다면 전체 커리어 생활의 전반기엔 일을 배워야 하고, 후반기엔 능숙해져서 개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. 그게 ‘인생의 워라밸’이 아닐는지. 따라서 한창 일을 배울 나이에 칼로 두부 자르듯 칼퇴만을 고집한다면 인생의 워라밸은 영영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.

**“이 주임, 칼퇴가 꼭 워라밸은 아니란 걸 명심해줬으면 좋겠어.”**

I 필자: 에밀 팀장 in 팀장클럽([café.naver.com/teamleadersclub](http://café.naver.com/teamleadersclub))